



FAO · WHO · EU국가 CIPAC 시험방법 요구



CIPAC이 국제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우리나라도 정식회원국으로 참여 하여 CIPAC의 비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국내농약산업의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김 태 화_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약식품분석팀 선임연구원

제55회 CIPAC(Collaborative International Pesticides Analytical Council, 국제농약분석 협의회)심포지엄이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약식품분석팀의 김상천 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의 신옥철, 김성우 연구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연구과의 김미정 연구관, 바이엘크롭사이언스의 김정수 과장 등 총 6명이 참가했다.

필자는 농약제품분석을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농약잔류분석분야에서 근무를 해 왔기에 분야가 다른 학회의 참가가 조금은 두렵기도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몇 번의 출장과 여행경험이 있기에 큰 걱정도 기대도 없었지만 CIPAC 심포지엄과 technical 미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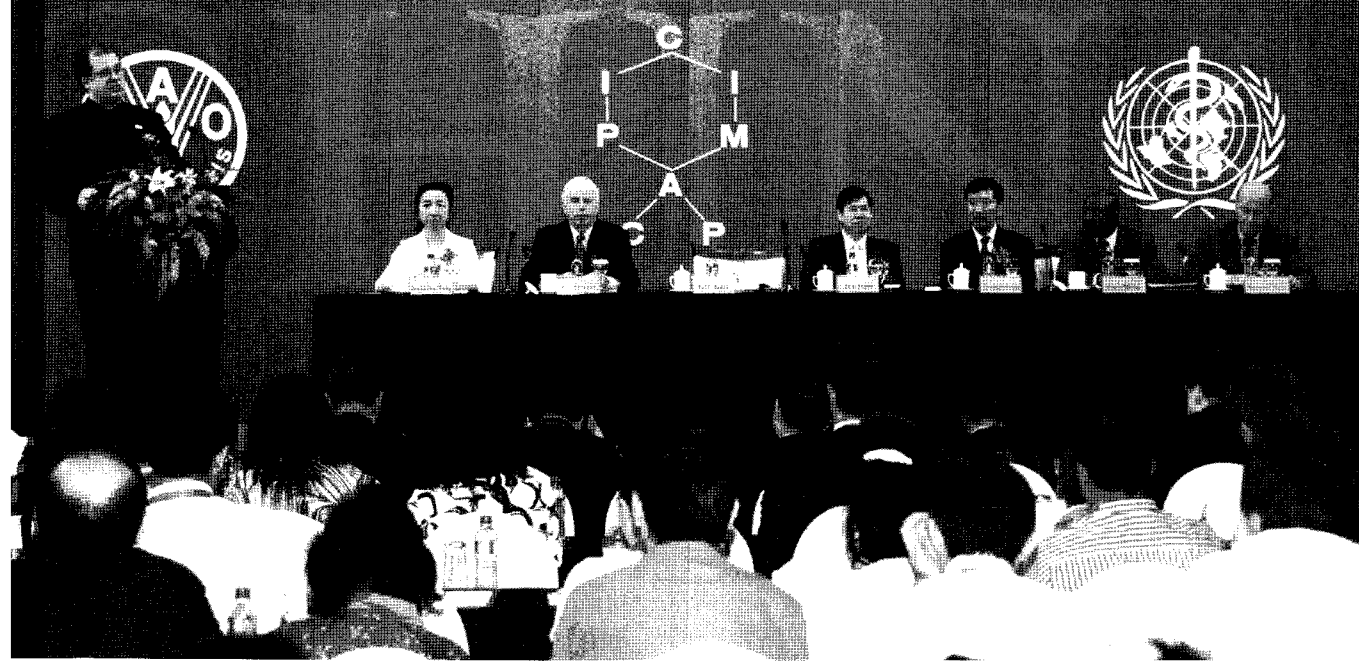
서 논의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많았다.

CIPAC은 2010년 슬로베니아의 류블라냐에서 개최된 제54회 CIPAC/FAO/WHO Joint open 미팅을 다녀온 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농약식품분석팀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유통농약의 품질검사를 위한 농약제품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약분석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공동분석 연구결과와 실험실간의 시험방법 통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팀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현재 FAO, WHO를 비롯하여 EU국가들은 농약의 등록시 CIPAC 시험방법을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분석에 대한 국제적인

8th Joint CIPAC/FAO/WHO Open Meeting and 55th-CIPAC-Meeting

June 13-16, 2011 Beijing, China



협약체인 CIPAC은 농약분석 분야에서 권위 있는 단체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매년 CODEX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한편으로는 CIPAC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CIPAC closed 미팅에서 올해의 CIPAC 개최지가 북경으로 최종결정 됐다. 지난해의 때 참석인원이 약 70여명 정도였다면 올해는 인구대국 중국답게 많은 중국농업관계자들의 참석으로 무려 400여명이 넘었다.

농약분석 국제 표준화 요구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베이비붐의 영향

은 급속한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농업의 집단화와 대량생산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동안 합성되어졌던 많은 화학물들이 약효검정을 거쳐서 농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농약의 품질 관리를 위한 분석법의 표준화가 요구되었다.

1957년에 농약분석의 표준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어 단 7명의 정식회원이 CIPAC의 탄생에 위한 시초가 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EU뿐만 아니라 FAO, WHO, AOAC 및 UNID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분석법의 공동연구에 착수하였고 1996년부터 FAO-CIPAC 공동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현재는 독일의 Ralf Hanel 박사가 회장으로



**농약품질의 국제규격은 FAO의 전문가 그룹이 규격을 평가하고 설정 후 공표하고 있다.
FAO는 농약규격 설정을 위해 CIPAC, AOAC, WHO, ISO, EC, OECD, UNIDO 등의
단체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를 비롯하여 세계 26개국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농약품질의 국제규격은 FAO(세계식량기구)
의 전문가 그룹이 규격을 평가하고 설정한 후에
공표하고 있다. FAO의 농약규격설정에 관여하
는 기구와 사람은 FAO, WHO, 학계 및 농약업
계의 관련 전문가들이며 그들은 소속된 나라나
단체의 이해와 관계없이 개개인의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FAO는
농약 규격 설정을 위해 CIPAC, AOAC, WHO,
ISO, EC, OECD, UNIDO 등의 단체들이 유기
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

올해 연례회의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
10차 FAO/WHO 농약분야 합동회의(JMPS)가
정식회원들 간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6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제8차 CIPAC/FAO/WHO 오
픈미팅과 제55차 CIPAC 미팅이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회원국이 아니므로
closed 미팅에는 참석할 수 없다. 심포지엄은
각 회원국에서 10명의 발표자가 '다이옥신의
신속한 분석법' 과 '에어로졸의 잔류분석' 을 비
롯하여 '농약의 광학이성질체' 등 10개의 다양

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poster session에
서는 14개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우리나
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김미정 연구
관이 '한국의 공중보건용 살충제' 에 대하여 포
스터 발표를 하였다.

현재 CIPAC 홈페이지([http:// www. cipac. org/prev_meetings.htm](http://www.cipac.org/prev_meetings.htm))에는 심포지엄 발표
자료 10개와 포스터 발표자료 14개의 제목이 계
제되어 있으며 심포지엄 발표자료 중 7개와 포
스터 발표자료 중 8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 가능하다.

Technical 미팅에서는 △공동연구 결과협
의, △캡슐현탁제 및 LN제형 등 제형별 특성에
따른 시험방법 개선, △향후 CIPAC의 시험방법
개선방안, △기존의 CIPAC 분석방법 등의 주제
가 토의되었다.

LN제형(Long-lasting insecticidal
mosquito nets, 살충제가 처리된 지속형 모기
장)에 대한 연구결과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도 '세척에 의한 감소 및 용출' 에 대한 내용으
로 발표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모기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군납용으
로 일부가 유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리법령
과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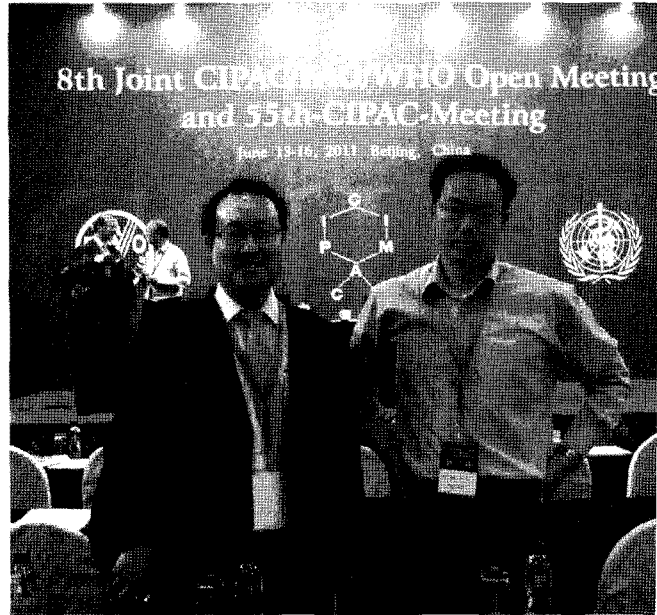
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연구의 내용과 깊이는 우리나라의 농약과학회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FAO 및 WHO와 연계한 CIPAC이 국제농약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의 농약산업 규모와 분석기술로 이러한 연구에 참여 한다면 CIPAC의 비전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약산업과 품질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CIPAC회의는 다시 유럽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6월 6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다. 역시 6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closed 미팅에는 정식회원만이 참석할 수 있으며 2013년의 개최국이 결정되고 open 미팅에서 발표될 것이다.

CIPAC의 정식회원 가입 시급

CIPAC의 정식회원(full member)은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가입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농약분석 전문가로서 수년에 걸쳐 CIPAC의 비전에 맞게 활발한 활동을 한 과학자를 국가별로 1인씩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슬로베니아에서 국립농업과학원의 김성우 연구사가 corresponding 회원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또한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연구과의 김미정 연구관이 연속 2년째 참석을 하면서 corresponding 회원으로 추천 받았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약식품분석팀 김태화 선임연구원, 김성천 연구원

회의의 마지막 날에 Ralf Hanel회장은 우리나라에서 CIPAC에 3번째 참석한 국립농업과학원의 김성우 연구사에게 공동연구과제 수행과 함께 corresponding 회원이 될 것을 제안했다. 정식회원의 자격조건은 국가 공무원이어야 하며 수년간 꾸준히 연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인사와 승진 등으로 담당업무의 변동이 잦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이러한 면에서는 참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CIPAC의 정식회원국이 되어 CIPAC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꾸준한 CIPAC 참석과 공동연구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약산업과 KOPAC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㉞